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농장 전경.

포스코인터내셔널, 팜사업 환경사회 정책 선언

“환경·인권보호 최우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
일자리 창출위한 상생 프로그램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기업 처음으로 팜사업 환경사회(NDPE·산림과 과금지) 정책을 선언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에 2011년도에 법인을 설립해 작년 기준 연간 약 8만톤의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선언한 NDPE 정책은 환경 보존·관리, 인권 보호·존중,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 대규모 팜오일 유통기업이 주로 채택해왔고 최근에는 팜오일 생산기업도 따르는 추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의 NDPE 정책은 환경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기존 환경정책보다 한 발 더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1일 설명했다.

개발한 농장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고보존 가치구역, 고탄소·저장지역, 이탄지역(석탄 이전 단계의 유기물 퇴적층) 등의 개발을 금지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도 지속한다.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주민 인권 보장에 주력하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이해관계자 외에 독립적인 감수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간다. 기존의 고충처리제도와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은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제기하는

어려움과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 정책은 팜오일 사업뿐 아니라 팜 열매, 팜오일, 정제유 등의 공급 기업에 함께 적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 선언 전문과 2020년 실행계획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표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고용 기회가 희박한 파푸아 지역에서 35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문맹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사업장 내 3개의 의료 클리닉을 설립하여 연간 2만5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2017년부터 연 2회 국내 전문의료진과 함께 연간 약 200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현지에서 필요한 맞춤형 무료 진료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인정받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9년 ESG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0일 발간된 'ESG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보고서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체험단 모집

SK매직 체험단 전원 제품 무상제공

SK매직은 5분당 1대씩 팔릴 만큼 인기가 많은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고객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체험단 모집인원은 그레이스블랙, 코튼화이트, 클라우드실버 등 3개 모델에 걸쳐 총 40명으로, 체험단은 오는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제품 사용후기를 블로그,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체험단 전원에게는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우수한 홍보활동을 펼친 체험단에게는 별도 시상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응모 방법은 응모자의 주방 사진과

함께 필요한 제품 및 이유를 적어 #SK매직트리플케어식기세척기 등 필수해시태그와 함께 블로그, 카페, SNS 등에 공유하고, 해당 URL과 참여 정보를 SK매직몰 이벤트 페이지 내 체험단 모집 지원하기에 작성, 응모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SK매직은 13일과 27일 2회에 걸쳐 체험단 선정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험단 신청 이벤트도 함께 한다. SK매직은 체험단 신청자 전원에게 공식 온라인 쇼핑몰, SK매직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할인쿠폰 5만원권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SKT, ‘5G MEC’ 상용화 속도

〈모바일 에지 컴퓨팅〉

‘텔레콤 에지 클라우드 TF’ 발족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통신사 협력
각 사 보유 기술 공유 등 실증 시험

SK텔레콤이 5G 시대 핵심 기술인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현지 기준) 런던에서 열린 GSMA 총회에서 도이치텔레콤, EE, KDDI,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차이나 유니콤, 싱텔, NTT도코모 등 9개 글로벌 통신사와 ‘5G MEC’ 상용화를 목표로 ‘텔레콤 에지 클라우드 TF’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텔레콤 에지 클라우드 TF’는 각 통신사가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에지 클라우드’간 상호 연동을 통해 ‘5G MEC’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사는 각사가 보유한 에지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의 연동 및 공유 등의 실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기반 에지 클라우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통



SK텔레콤연구원이 MEC플랫폼이 설치된 서버실에서 AR글래스를 쓰고, 산업용 AR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있다. /SK텔레콤

신사로서, 글로벌 통신사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5G MEC’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5G MEC’ 기술과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이고 기술 생태계의 빠른 발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간 기술 및 서비스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개발자는 같은 서비스라도 각 통신사의 ‘5G MEC’ 시스템에 맞춰 별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GSMA 및 GSMA의 주요 회원사인 도

이치텔레콤, 텔레포니카 등과 함께 ‘오픈레이터 플랫폼 TF’를 구성, ‘5G MEC’ 기술과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모델과 솔루션을 구체화하고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시아 태평양 통신사 연합회 ‘브리지 얼라이언스’ 소속 통신사인 싱텔, 글로벌, 타이완모바일, HKT, PCCW글로벌 등 5개사와 함께 ‘글로벌 MEC TF’를 발족해 5G MEC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롯데글로벌로지스, 아시아나IDT·굿럭컴퍼니와 MOU

도심-공항 당일집배송 추진... “여행편의 제고”

캐리어 이동·대기시간 해결
이달중 롯데월드타워서 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굿럭컴퍼니, 아시아나IDT와 ‘도심-공항 당일 집배송 서비스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집배송 서비스’란 해외 여행객의 짐을 집이나 호텔에서 공항까지 배송해주는 편의 서비스다.

이번 MOU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Drop) 서비스’와 집배송 서비스를 연계해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제주항공과 제휴하고 있는 이지드랍서비스는 호텔



(왼쪽부터)서근석 아시아나IDT 상무, 롯데글로벌로지스 장기룡 택배영업부부장,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가 지난 27일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에서 MOU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내 이지드랍센터에서 체크인(탑승권 발급) 후 수하물을 맡기면 해외 도착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해외 여행객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공항까지 이동하는

불편함과 공항에서 대기시간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현재 흥대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달 중 롯데월드타워에서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분 “마스크 판매, 오전 11시부터”

우체국서 당일 판매수량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건용 마스크 공급물량 부족으로 우체국에서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물량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우분은 지난달 27일 대구·청도지역

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전국 1406개 우체국에서 1인당 5매씩 판매했으나 부족한 공급량으로 읍·면소재 우체국에서는 약 70명에게만(1인당 최대 5매) 판매할 수 있었다.

우분은 마스크 공급물량 대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안정적인 판매물량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와 주말에도 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분은 2일부터 마스크 판매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겨 판매

하기로 했으며, 우체국에서 당일 판매수량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제주지역은 오후 5시, 도서지역은 도착사항에 따라 판매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시간제우체국은 오후 2시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물량 부족으로 조기에 판매가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분 관계자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공급물량 확대도 수급이 안정되면 우체국쇼핑 온라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